

## 근대이후 저고리 안감깃 봉제방법 소고

김진홍·조우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Sewing Method of Inner Collar of Women's Jeogori in Modern Korea

Jin-Hong Kim · Woo-Hyun Cho\*\*

M.A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8. 6. 22. 접수; 2008. 8. 19. 수정; 2008. 8. 26. 채택)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sewing methods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inner collar among women's jeogories in order to understand such sewing techniques, which has emerged during modern Korea, and has utilized diversly for the shape of the jeogori's inner collar and as part of the inner collar. The study was conducted on relics possessed between 1900 to 1990, or 515 pieces of jeogories.

Jeogories were classified into single-layered and double-layered jeogories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ir composition. Inner collar shapes of jeogories have also been categorized. It was found that single-layered jeogories comprise 49 inner collars with shapes identical to those of the outer collars. Double-layered jeogories comprise of the following three types: 43 pieces of godae close, 18 pieces in which the inner collar of the outer bodice are cut without a connecting line and the inner collar of the godae and inner bodice are suspended, and 405 pieces in which the shape of the inner collar is identical to that of the outer collar.

From the shapes of inner collars mentioned above, the following sewing methods have been derived:

1. To sew the inner collar of single-layered jeogories, a seaming technique had been used.
2. Among the inner collars of a double-layered jeogori, godae close was sewn with only a short part of the godae by using a lining, and then finished with overage and blind stitches. Godae close was a convenient way to attach inner collars, and also saved much time.
3. Inner collars with shapes identical to the outer collar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ith outer collars cut out following the cloth without seam and shifted towards the linings and used as an inner collar, and those with outer collars made of outer linings and inner collar of inner linings. To sew the collar, paste and needlework had been employed, where the methods of needlework were divided into blind stitch, overage stitch, and catch stitch. In sewing with paste, only godae was blind stitched or overage stitched, and the remainder had been painted with paste or the collar had been finished with heated soldering iron after the entire inner collar was painted with paste.

**Key Words:** Modern Korea(근대), Women's Jeogori(여자 저고리), Inner Collar(안감깃), Sewing(봉제)

---

Corresponding author ; Woo-Hyun Lee

Tel. +82-2-760-0518, Fax. +82-41-850-8301

E-mail : joy54@hanmail.net

## I. 서론

옷을 몸에 걸치기 위해 시작된 바느질은 예의를 숭상하면서 여인들에게는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조선 여인들에게는 품격을 측정하는 척도였던 바느질<sup>1)</sup>이 근대 이르러서는 인격이 되기도 한다.

봉제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인 깃은 목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칭으로 ‘領’字를 흔히 사용하기도 한다. 『釋名』에 「領頸也以纒也 亦言總領衣體爲端首也」라고 되어있어 깃은 옷의 머리, 즉 저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위치와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우두머리, 대표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領袖’는 옷의 형태에 있어서 깃과 소매의 구조적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또한 깃은 남기다의 고어인 ‘기티다’에서 비롯되어, 명사형으로 사용하여 ‘깃’은 한국전통복제사에서 유산, 혹은 상속을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깃은 領 이외에 깃을 의미하는 한자로는 衿, 襟 등이 있고<sup>2)</sup>, 그 중에서 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깃의 구체적인 모양에 따라 直領, 團領, 曲領, 盤領, 翻領, 垂領 등의 명칭으로 쓰였고, 이 중 우리나라 저고리의 깃은 직령에 속한다<sup>3)</sup>.

저고리를 중심으로 깃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보면, 깃은 선의 개념에서 비롯하였다. 고려까지는 선의 개념으로 달리다가 조선 초기에는 대부분 목판깃이었고, 옷깃이 옷섶 밖으로 나아가 달렸다. 중기에서 말기에는 목판깃에서 칼깃 그리고 당코깃으로 이어졌고, 깃머리도 모진 것에서 약간 둥글러졌다. 옷깃의 일부는 섶 안으로 들어가 달린 경우가 주었고, 오늘날의 저고리와 같이 섶 안으로 들어가 달린 옷깃의 형태는 1900년대에 이르러서이다.<sup>4)</sup> 저고리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저고리의 여밈이 좁아졌고, 전체적인 품이 줄어들어 섶도 작아졌다. 품이 줄어들어 저고리의 깃이 짧아지면서 섶 안으로 들어가 달렸다<sup>5)</sup>. 현대 전통 깃에서 볼 수 있는 동그래깃은 1900년대에 이르러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1920년대가 지나면서 보편화 되어갔다<sup>6)</sup>.

우리나라 전통복식은 서양과는 달리 직선을 중심으로 재단되어진다. 그러나 봉제과정을 통해서 단아한 선의미를 표현하는 곡선으로 나타

난다<sup>7)</sup>. 저고리를 입었을 때에 깃 봉제에 의해서 착용자와 보는자에게 편안함과 옷의 균형성을 주기 때문에<sup>8)</sup> 이곳의 바느질 솜씨에 따라 옷맵시가 좌우된다<sup>9)</sup>. 그 중 안감깃은 최종적 마무리 단계로서 창구명을 통해 뒤집은 저고리를 정리함으로서 형태를 안정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으므로 안감깃 봉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 저고리 봉제방법 중 안감깃의 형태에 따른 봉제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근대이후 저고리에 나타난 안감깃의 형태와 안감깃이라는 한 부분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봉제 테크닉을 고찰하고자한다. 연구범위와 자료는 1900~1990년까지의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소장 근대 유물 저고리 515점이다.

근래 복식사계통의 연구는 근대한복문화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시각자료 및 실제 유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유독 근대한복에 사용된 봉제법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저고리 봉제에 따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II. 연구 내용과 방법

충남대학교 소장 근대 유물 저고리는 1900년에서 1990년도의 것으로 1900년대 1점, 1930년대 8점, 1940년대 30점, 1950년대 51점, 1960년대 122점, 1970년대 251점, 1980년대 48점, 1990년 4점으로 분류되었다.

515점의 저고리에서는 손바느질 50점, 재봉틀 465점으로 재봉틀 사용이 많았다. 손바느질은 1900~1960년대까지만 보였고, 재봉틀 사용은 1930년대에는 손바느질과 섞여서 조금씩 보이다가 1950년대부터 증가하여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재봉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복을 만드는 중요한 기법은 손바느질이었으며, 1877년에 우리나라에 재봉틀이 보급되었으며 처음 보급되었을 때에는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다<sup>10)</sup> 1930년 후반에는 일반 가정에도 재봉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재봉틀이 들어오면서 봉제방법이 기능적이 되었고, 시접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꺾음술이나 가름술에서 곱

<표 1> 구성형태에 따른 저고리 분류

	홀	겹	숨	누비	
1900년대	0	0	1	0	1
1930년대	2	2	4	0	8
1940년대	4	12	14	0	30
1950년대	17	23	11	0	51
1960년대	13	106	2	1	122
1970년대	9	242	0	0	251
1980년대	3	44	1	0	48
1990년대	1	3	0	0	4
계	49	432	33	1	515

<표 2> 저고리 구성형태에 따른 안감깃의 형태 분류

구성형태	안감깃 형태	갯수
홀저고리	겉감깃과 같은 형태(동그래깃)	49
겹저고리	고대막음	43
	고대, 안감깃	18
	겉감깃과 같은 형태(동그래깃)	405

솔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근대 저고리는 1960년대 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소재의 다양화로 레이스나 조오젯, 쉬폰 등 양장에서 쓰이는 아주 얇은 소재를 겉감으로 사용하여 겉감과 안감 사이에 망사를 넣어 세 겹으로 만들었고<sup>12)</sup>, 깃의 형태 안정성을 위해 심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고리 봉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감깃의 봉제방법을 살펴 보았다. 깃은 겉깃, 고대, 안깃으로 구분되며, 겉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옷깃, 고대는 뒷목둘레, 안깃은 저고리·두루마기 따위의 안자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한다<sup>13)</sup>. 겉길에 달리는 깃은 겉감깃, 안길에 달리는 깃은 안감깃으로 지칭하였다<sup>14)</sup>.

실물 저고리 515점에 보이는 겉감깃의 형태는 1900년도 저고리 1점만 당코 깃 형태이고 514점은 동그래깃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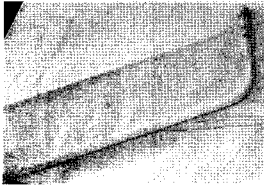
봉제방법을 보기위해 먼저 구성 형태에 따라 홀저고리와 겹저고리로 나누고, 여기에 나타난 안감깃의 형태를 분류하였다<표 1>. 숨저고리와

누비저고리는 겹저고리와 같은 방법으로 봉제하여 겹저고리에 포함시켰다. 홀저고리에서는 겉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 49점이 나타났다. 겹저고리에서는 안감의 길과 깃이 이음선이 없이 골로 마름질되어 고대만 깃 처리가 되어있는 고대막음의 형태 43점, 겉길 쪽 안감깃은 이음선이 없이 골로 마름질되고 고대와 안길 쪽 안감깃은 달아준 형태 18점, 겉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 405점 세 가지로 나타났다<표 2>. 네 가지로 분류된 안감깃의 형태에 따라 봉제방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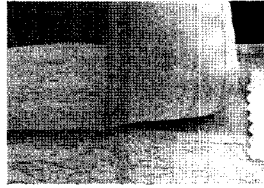
### III. 안감깃의 봉제방법

#### 1. 홀저고리 안감깃의 봉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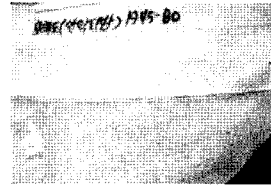
1930~1990년대까지 49점으로, 깃 봉제방법은 곱솔 바느질법을 사용하였다. 곱솔은 솔기를 두 세 번 곱쳐 박아서 울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접이 없이 가늘고 곱게 바느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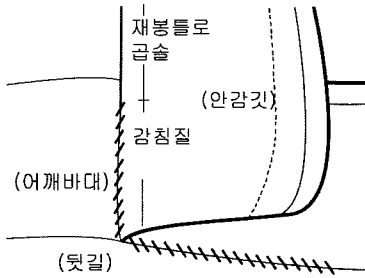
<사진 1> 홀저고리 안감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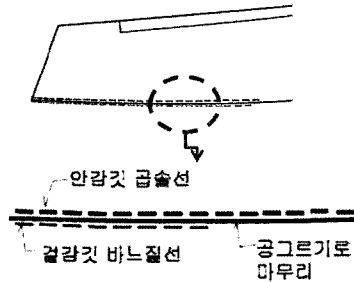
<사진 2> 홀저고리 안감깃



<사진 3> 홀저고리 안감깃



<그림 1> 사진 2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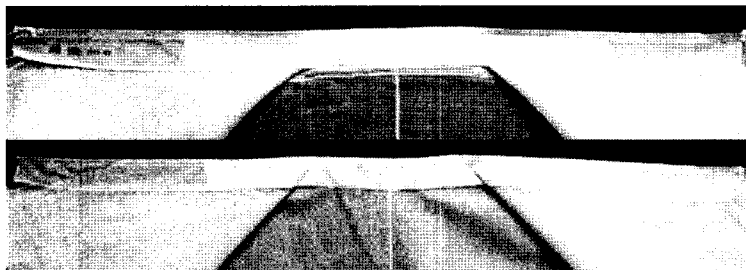


<그림 2> 사진 3의 도식화

홀저고리에서는 세 가지의 봉제방법이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겹감깃을 겹길에 얹혀 시침질을 한 후 깃을 젖혀 깃머리를 제외하고 완성선을 따라 박고, 깃머리는 공그르기를 한다. 깃과 시접을 길 쪽으로 꺾어 0.1cm로 눌러 박은 후 시접을 잘라낸다. 길의 안감 위에 안감깃을 올려 겹감깃의 겹과 안감깃의 겹이 마주 보는 방향이 되도록 놓고, 겹감깃의 완성선 위에 다시 눌러 박은 후 안감깃의 시접을 잘라낸다. 깃의 외곽선은 끝에서 7~8cm 정도 곱솔로 겹감깃과 안감깃을 연결한다. 깃의 나머지는 완성선으로 꺾어 안끼리 마주 놓고 길에서 눌러 박는다<사진 1>. 두 번째는 겹감깃은 위와 동일하게 하고 겹감과 안감깃의 외곽선을 먼저

연결한다. 완성선보다 0.1cm 크게 박고, 박은 선을 접어 다시 0.1cm로 박아 시접을 잘라낸다. 길에 달릴 안감깃 부분을 겹감깃에 연결 시 고대 부분만 남기고 박는다. 고대의 마무리는 감침질을 사용하였다<사진 2>. 세 번째는 깃 외곽선 연결까지 두 번째 방법과 같고, 안길에 놓일 안감깃 부분은 완성선으로 접어 0.1~0.2cm로 박아 시접을 잘라내고 감침질로 마무리 하였다<사진 3>.

한편 안감깃의 형태 안정성을 위해 심감을 대어주었는데, 겹감깃은 두 겹으로 안감깃은 한 겹으로 하여 깃 전체에 심질을 대어주거나 원단을 두세 겹으로 접어 안감깃 위에 놓고 공그르기 하였다<사진 4>.



<사진 4> 홀저고리 안감깃에 부착된 심지

<표 3> 겹저고리의 안감깃 형태분류

	고대막음	고대, 안감깃	겉감깃과 같은 형태
1900년대	0	0	1
1930년대	0	0	6
1940년대	9	0	17
1950년대	7	2	25
1960년대	9	7	93
1970년대	14	8	220
1980년대	4	1	40
1990년대	0	0	3
계	43	18	405

2. 겹저고리의 안감깃 봉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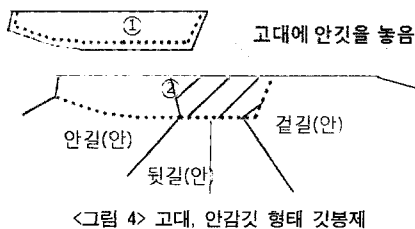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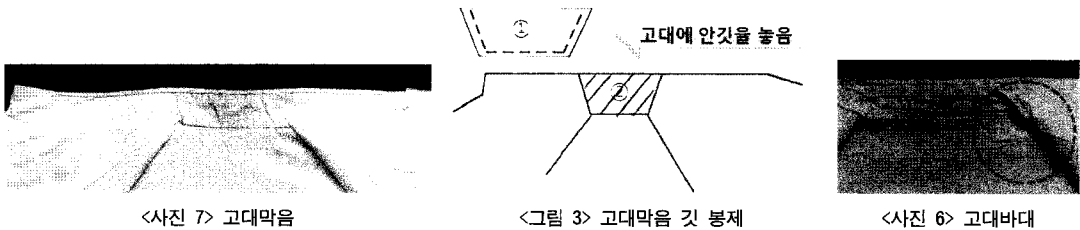
1) 고대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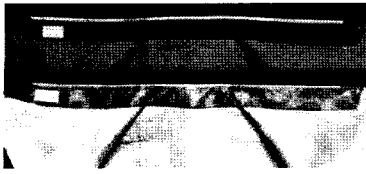
1940~1980년대까지 43점의 저고리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고대막음은 간편하게 안깃을 다는 방법으로 많은 시간과 원단을 절약할 수 있다. 안감의 길과 깃이 이음선이 없이 골로 마감되어 고대만 깃 처리를 하는 방법이다<사진 5>. <그림 1>의 도식화로 설명을 하면, 안감 ①을 완성선으로 꺾어 ②에 놓고 감침질, 공그르기로 손바느질하였다. 이 중에서 뜰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5cm 정사각형 원단을 양쪽 고대 부분에 대고 공그르기를 한 것도 3점 보였다<사진 6>.

고대와 안깃만 깃의 형태가 있는 안감깃은 고대막음과 봉제방법이 동일하다<그림 2><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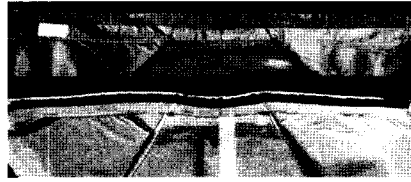
2) 겉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

여기에서는 깃의 마감질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90점의 저고리에서 나타난 형태로 겉감깃을 골선으로 마감질하여 안감 쪽으로 넘겨 안감깃으로 사용하였다<사진 8>. 안감 쪽으로 넘긴 안감깃은 공그르기, 새발뜨기 등 손바느질로 마무리 하였다. 90점의 저고리 중 14점은 1~3cm정도만 골선으로 마감질 된 겉감깃이 안감깃으로 사용되고 모자란 부분은 안감을 이어서 사용하였다<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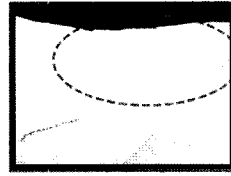
<사진 8> 골선으로 마름질된 안감깃



<사진 9> 골선으로 마름질된 안감깃



<사진 10> 풀 사용한 안감깃



<사진 11> 풀 사용

두 번째는 걸감깃은 걸감으로 안감깃은 안감으로 각각 마름질 되어진 형태로 봉제방법으로는 풀과 손바느질이 사용되었다. 풀을 사용한 방법은 34점의 저고리에서 보였으며, 1900~1970년대까지 이 방법이 사용되었다. 『신여성』 제 2권 11월호, 외국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복의 장처단체에는 “조선 부인들이 옷을 지을 때에 풀로 부쳐가면서 지어 입어 한번 빨래를 하려면 모두 뜯어서 시간이 걸리므로 속히 개량하여야 할 것” 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는 의복을 지을 때 풀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깃의 봉제방법으로는 걸감깃머리에서 섯선까지는 풀칠을 하고 걸감깃의 나머지는 봉제를 하였고, 안감깃은 고대만 공그르기 또는 감침질을 하거나 안깃 전체를 풀칠을 한 후 인두 또는 다리미로 열을 가하여 깃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0>. 잦은 세탁과 뜯어서 세탁하고 다시 봉제를 하는 방법으로 인해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본다.

재봉틀 사용 증가와 1950년대의 화학섬유 소재 등장으로 깃에도 봉제를 하게 되었다<sup>15)</sup>. 걸감깃머리에 공그르기를 하고 깃머리에 풀을 발라 다리미로 깃의 형태에 따라 열을 가해 고정시키고 걸감깃 나머지 부분은 손바느질이나 재봉틀을 사용하였고, 안감깃은 공그르기, 감침질, 새발뜨기 등 손바느질로 마무리 하였다<사진 12, 13>. 봉제된 걸감깃 중에서 10점은 손바느질을 사용하였는데, 땀수 간격이 2~3cm로 성글게 되어 있었다.

한편 31점의 저고리에서는 안감깃에 심감을 대주었다. 이는 아주 얇은 소재를 걸감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깃의 형태 안정성과 봉제를 수월



<사진 12> 손바느질



<사진 13> 새발뜨기한 안감깃



<사진 14> 안감깃의 심지

<표 4> 겹저고리의 안감깃의 형태와 봉제방법

구성형태	안감깃 형태		봉제방법	갯수
홀저고리	겉감깃과 같은 형태(동그래깃)		곱술	49
겹저고리	고대막음		공그르기, 감침질	43
	고대, 안감깃		공그르기, 감침질	18
	겉감깃과 같은 형태(동그래깃)	괄선	손바느질	90
		겉,안깃 분리	풀	26
		손바느질	289	

하게 하기 위해 심감을 넣게 되었다. 심감은 고대 부분만 대어주거나 겉깃에서부터 안깃까지 전체적으로 대어주었고, 안감으로 심감을 사용하였다. 고대 부분만 심감을 댈 경우에는 안감을 3~4겹 접어서 넣어주었다<사진 14>.

지금까지의 홀저고리와 겹저고리의 봉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 3. 안감깃 상침무늬

122점의 저고리에서 안감깃에 처리되어있는 상침무늬를 볼 수 있는데 1960년대부터 나타나 1970년대에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1980년대에서는 8점이 보이고 1990년대에는 상침무늬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심지를 고정시키기 위해

<표 5> 상침무늬

연대	상침무늬	물결	나뭇잎	사슬	누빔
1950년대		0	0	0	1
1960년대		3	1	2	31
1970년대		3	0	0	72
1980년대		1	0	0	8
계		7	1	2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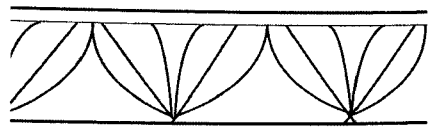
<사진 15> 물결무늬



<그림 5> 물결무늬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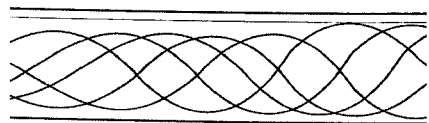
<사진 16> 나뭇잎무늬



<그림 6> 나뭇잎무늬의 도식화



<사진 17> 사슬무늬



<그림 7> 사슬무늬도식화

안깃과 심지를 재봉틀로 한 줄 또는 두 줄로 박았다가 장식적인 미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봉 상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깃에 사용된 재봉 상침 무늬로는 물결무늬 17점, 나뭇잎무늬 1점, 사슬무늬 2점이 보였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여러 줄 누빈 것은 112점으로 가장 많았다<표 5>. 안깃의 재봉 상침은 심감과 같은 역할로서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사진 15, 16, 17>.

#### IV. 결론

본 연구는 1900~1990년까지의 근대 저고리 515점을 구성형태에 따라 홑저고리와 겹저고리로 분류하고 각각의 안감깃에 나타난 봉제방법을 파악하였다.

홑저고리에서는 걸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 겹저고리에서는 안감의 길과 깃이 이음선이 없이 꼰로 마름질되어 고대만 깃 처리가 되어있는 고대막음, 걸길 쪽 안감깃은 이음선이 없이 꼰로 마름질되고 고대와 안길 쪽 안감깃은 달아준 형태, 걸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 세 가지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안감깃의 형태에 따른 봉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홑저고리의 안감깃의 봉제방법은 곱솔 바느질법을 사용하였다. 홑저고리에 나타난 방법은 세 가지로 걸감깃과 같이 봉제되거나, 안감깃의 부분 또는 전체를 곱솔로 바느질 한 후 안감길에 놓고 공그르거나 감침질을 하였다. 걸감깃은 심지를 대어 두 겹으로 안감깃은 한 겹으로 하였다.

2. 겹저고리의 안감깃 중 고대막음의 봉제방법은 고대의 부족한 부분만 안감을 사용하여 감침질과 공그르기로 마무리 하였다. 고대막음은 간편하게 안감깃을 다는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 걸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은 걸감깃을 꼰선으로 마름질하여 안감 쪽으로 넘겨 안감깃으로 사용한 것과 걸감깃은 걸감을 사용하고 안감깃은 안감을 사용한 것 두 가지로 나타났다. 봉제방법은 풀과 손바느질을 사용하였고, 손바

느질에 사용된 방법은 공그르기, 감침질, 새발뜨기이다. 풀을 사용한 봉제방법은 고대만 공그르기 또는 감침질을 하고 나머지는 풀질을 하거나 안깃 전체를 풀질을 한 후 인두 또는 다리미로 열을 가하여 깃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안감깃에 처리되어있는 상침무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안감깃과 심지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다. 안깃의 재봉 상침은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근대이후 변화된 복식이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의 전통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출토복식 뿐만 아니라 근대이후 복식의 봉제방법도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봉제 테크닉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서는 현장 실습이 병행된 봉제방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 1) 조효순 (1989).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p.104.
- 2) 김문자 (1981). 조선시대 저고리 깃에 대한 연구. *복식 5*, pp.186-187.
- 백금현 (1982). 옷깃과 옷설의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 *복식 6*, pp.106-107.
- 3)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조각, p.29.
- 4) 백금현 (1982). 옷깃과 옷설의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 *복식 6*, pp.107-108.
- 5) 유재운 (1996). 조선후기 여자저고리의 양식 변화의 상징적 의미 연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2.
- 6) 윤영애 (1996). 옷깃에 대한 연구. *진주대학교 논문집 제 19집*, pp.725-731.
- 7)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45.
- 8) Ibid., p.46.
- 9) 조효순 (1989). Op. cit., p.105.
- 10) 서울민속대관 9 (1995). 의식주편.
- 11) 고부자 (2001). *우리생활100년 옷*. 서울: 현암사, p.193.
- 12) 조효숙, 송미경 (2007). *그리운저고리 -저고*



- 리의 역사적 변천-. *경은박물관*, p.186.
- 13) 표준어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14) 김순심, 이유경 (1998). *한복 의복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pp.42-44.
- 임상임, 유관순 (1999). *한복구성*. 서울: 교문사, pp.229- 232.
- 백영자 (1998). *한국의 봉제*. 서울: 교학연구사, pp.42-43.
- 15) 이태옥 (2006). 19세기 이후 여자 저고리 변천에 관한 실증적 연구-형태 및 봉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84.